

온식구 월500만원 기획

온식구 : 하루 한 문장, 가족의 기록을 담는 가장 따뜻한 방법

온식구 : 늦기 전에 시작하는 가장 쉽고 따뜻한 가족 기록

온식구 : 쉽고 따뜻하게, 늦기 전에 남기는 우리 가족 기록

3개합치면

-> 온식구 : 늦기 전에 하루 한 문장, 가장 따뜻한 가족 기록

앱 철학 : 앱 체류시간이 아니라, 현실에서 가족이 10분 더 웃게 만드는 '가족 대화 마중물'

카톡 대체가 아닌 질문→기록→회고가 남는 구조화된 기억 저장소.

0. 기준

기능추가기준

1. 무반응을 줄이나?

2. 강요/평가 느낌을 늘리나? 줄이나?

3. 설명/구현 비용 대비 사용률이 나올까?

AI는 '아카이브를 요약해주는 존재' or '질문을 골라주는 존재'

가족 사이에 기계가 끼어드는 느낌 X

1. 심리적 안전 장치

- AI는 가족이 설정한 금지 키워드와 질문 강도 상한선을 지킨다 (정치/돈/취업 등)
- 모든 질문에는 탈출구 버튼 존재 - 셔플, 패스, 나만보기 버튼 (정의, 제한은 부록 참조)

2. 참여 설계

부담 금지

- 미참여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하는 모든 멘트 금지 (연속 출석 압박, 미응답 공개 등)
- 알림은 '재촉'이 아닌 '초대'의 톤 유지 (오늘 질문이 왔어요 😊 이런느낌)
- 매일 푸시 = 스팸 인식 가능, 사용자별 반응 패턴 학습후 주 2~3회 알림이 더 좋을지도
- “오늘은 질문 쉬어도 돼요” 같은 톤도 효과 O (역설적으로 부담 낮춰 복귀↑)

식구들의 무반응 방지

- 주인공은 “답변 의무자” X “포커스 받는 사람” O (이런 느낌)
- 목표 KPI: 게시 후 12시간 내 1반응 비율, 사용자에게는 의무를 드러내지 않고, 초저마찰 리액션 + 앵커 리마인드(조용히)로 달성
- 초저마찰 1초 반응: 이모지/템플릿 한 줄/봤어요? 버튼 ('보는 재미'를 '참여'로 바꾸기 위해)
- 일정시간 무반응, 무리액션시 AI는 L1~L2의 '완충 개입'만 수행한다 (부록 참조)
- L0: 아무 것도 안 함(기본)
- L1: 앵커에게만 조용한 리마인드(이모지 부탁)
- L2: 주인공에게 완충 메시지(민감함 방지) + 다음 질문 난이도 하향

실사용 동기

여기서 핵심은 “가족 앱은 안전만으로 안 열린다”는 것.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 다시 들어와. 다만 네 철학이 “부담 금지”니까, 보상도 부담 없는 쪽이어야 함.

넣을 만한 동기 4개(강요/평가 느낌 최소화 버전)

1. 주간 하이라이트(자동 요약 카드)

- “이번 주 우리 가족이 웃은 순간 3개”
 - “새로 알게 된 가족 TMI 3개”
 - 사용자가 ‘기록의 가치’를 매주 체감함.
 - 1. 월간 ‘우리 가족 한 페이지’(누적 보상)
 - 연속출석이 아니라 “쌓이면 페이지가 채워지는” 방식
 - 성취감은 주되, 미참여 죄책감은 덜함.
 - 1. 가벼운 ‘낚시’형 알림(호기심 트리거)
 - “오늘 질문: ‘엄마가 요즘 꽃힌 것’ ... 답이 달렸어요”
 - 읽기 동기를 만들어서 앱 재방문을 만듦.
 - 1. 카톡 공유는 ‘하이라이트만’(원문 전체 공유 금지 기본값)
 - 공유 카드 한 장(문장 1개 + 이모지)만
 - 현실 대화 마중물과도 연결되고, 프라이버시 부담도 줄어듦.
- 피해야 할 동기: 랭킹/점수/누가 제일 참여했는지 같은 것. 가족 관계에서 “평가”로 바로 변질됨.

3. AI 질문 알고리즘

- 가벼운 질문이 주식(LV1~2), 깊은 질문은 특별식(LV3~4)
- 가족의 라이프사이클(수험/분가/은퇴 등)과 시간대를 반영해 ‘눈치 있는’ 질문을 던진다.
- 시간대/요일/최근 활동량에 따라 난이도 자동 조절 - 평일엔 주식, 주말엔 특별식? 2:8 파레토법칙?
- 실패(부담/취조감) 시 즉시 대체(서플) + 실패 로그 축적.

데이터 수집 방식

1. **인앱 행동 데이터:**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/패스했는지/서플했는지/답변 길이/반응 패턴
 - 이걸 프라이버시 부담이 낮고, 개인화에 제일 쓸모 큼
2. **시간 신호:** 요일/시간대/최근 앱 접속 빈도
 - “눈치”의 80%는 사실 이걸로 됨
3. **초미니 설정:** 금지 주제 기본 세트 + 질문 톤(가벼움/중간/깊음)
 - 가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화 기반을 줌 (가입시 금지 주제 기본 설정 + 나중에 세부 설정)

“라이프사이클(수험/은퇴 등)”은 자동추정보다 ‘가벼운 체크인’이 현 실적

- 자동추정은 오탐/불쾌감/프라이버시 리스크 큼.
- 대신 월 1회 정도 **선택형 체크인**이 현실적:
 - “요즘 우리 집은 어떤 시기인가요?” [바쁨/평소/행사 많음/변화 중]
 - 이 정도면 “눈치 있는 질문”을 충분히 뒷받침 가능

운영 및 기술 가이드라인

데이터 기반 실험

- **핵심 지표:** 주간 가족 상호작용률, 게시 후 12시간 내 1반응 비율, 패스/서플 사용률, 가족 단위 4주차 잔존 등
- 모든 질문 농도와 알림 타이밍은 가설 검증(A/B Test)을 통해 최적화

지속 가능한 품질

- AI 비용 최적화를 위해 캐싱, 사전생성 및 경량 모델을 우선 활용한다.
- **불변의 원칙:** 어떤 편리한 기능도 ‘가족 현장(안전)’보다 우선할 수 없다.

4. 기능 확장 및 영속성 정책

현실로 이어지는 다리

- 가입 병목(특히 부모 세대)을 줄이기 위해
- **미가입자 대리 입력:** 가족이 가입 전에도 “한 문장”이 쌓이는 경험 제공 → 가치 체험 먼저

- 가벼운 초대 템플릿: “가입해” X, “엄마 오늘 질문 왔어요, 한 줄만 남겨줘요!”처럼 부담 낮춤
 - 카톡 하이라이트 공유로 앱 밖 오프라인 소통 촉진
- 디지털 유산의 완결**
- 사용자가 "이 앱이 사라지면 어쩌지?"라고 묻지 않게 한다 (내보내기/백업/복구/권한)
 - 상속/해체 시나리오는 장기 정책에서 다룬다

부록

(1) 셔플 / 패스 / 나만보기

정의

- 셔플(질문 바꾸기): 지금 질문을 즉시 교체 (난이도/금지키워드 유지)
- 패스(오늘은 쉬기): 오늘의 질문/주인공 루프에서 빠지는 옵션 (죄책감 유발 금지)
- 나만보기(비공개 답변): 답변은 남기되 가족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(나중에 공개 전환 가능)

추천 동작

- 셔플: 하루 최대 3회 무료(무한은 알고리즘 학습 깨짐)
- 패스: 누르면 “오늘은 쉬어도 괜찮아요” + 내일 자동 재시작 (연속 출석 깨짐 같은 개념 없음)
- 나만보기: 답변 작성 시 공개 범위 선택(전체/특정인/나만)

(2) “무반응”과 “무리액션”

A) 무응답(주인공 답 없음) 12~24시간

- AI가 “괜찮아요, 오늘은 짧게/사진/선택형으로도 돼요”로 난이도 하향 제안
- “혹시 가족이 주인공에게 응원 한 줄 남길래?” 식으로, “재미없음/부담/UX 결함”이 아닌 상황(피곤/바쁨/성격/세대)으로 인한 잦은 무응답에 대해 역방향 소통 기능 (다음 버전에서 구현)

B) 무리액션(답했는데 12시간 반응 0)

- (앵커에게만) 조용히 푸시: “이모지라도 눌러주면 좋아요”
- 반응이 계속 없으면 AI가 답글을 “대신 달기”보단, 주인공에게 민망하지 않게 처리
 - 예: “오늘 기록 고마워요. 내일 질문은 더 가볍게 드릴게요.”
 - 그리고 가족에게는 “가족 기록이 쌓였어요” 같은 비난 없는 알림만

피드백/개선 사항

(A) ‘금지 키워드’는 “가족 공통 + 개인별” 두 겹이 안전

가족 전체 금지(정치/돈/취업)도 필요하지만
개인마다 “나는 연애/건강/학창시절 얘기 싫음”이 다름

(B) “기록”을 팔 거면, 기본값은 ‘안전한 기록’이어야 함

너가 말한 디지털 유산/상속까지 가려면 더더욱.

- 기본 공개 범위는 “전체”가 아니라 ‘가족’이더라도 기본은 조심스럽게
- 공유/내보내기/백업은 강력 기능이지만, 초기에는 “불안”도 같이 키울 수 있어
 - “내보내기”는 설정 깊숙한 곳 + 명확한 경고/권한 추천

더 고민해야 할 포인트(지금 단계에서 진짜 중요)

“매일 한 명”을 고정할지 vs “주 3회” 기본으로 들지